

## 오피니언 리더 오찬

상황이 쉽지 않아..노사정간 대화를 위한 신뢰가 취약,

저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나 정부 하는 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을 텐데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운동을 앞장서 이끈 분들에 대해서 인간적 애정과 인연이 깊습니다. 잘 해보고 싶은데 부딪힌 상황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있고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현상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사람을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시장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쟁력인데 그것을 존중 안 할 수도 없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경쟁력 말만 나오면 제일 저를 압박하는 게 노사문제입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노사문제가 국내외 여론대세가 된데 대해 딱히 반론할만한 마땅한 게 없습니다.

한국은 노사분규 건수가 많습니다. TV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강경대결 상태이고, 색깔이 화려해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큼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하려면 정부도 그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유연성 얘기하기 전에 고용유연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서민대책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려움입니다.

반면 요구는 시간을 안주는 것 같습니다. 즉시 해결을 요구합니다. 대화하고 싶은 데 정부나 노사는 신뢰가 취약합니다. 게다가 현금을 요구합니다. 노동단체는 즉시 요구하며 행동하고 앞서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대체로 제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었습니다. 점심을 맛있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반찬값은 안 해도 좋으니 밥값만 해주십시오.